

올해는...  
올바른 교사는 싸움터에  
나가지도 화살을 조금도 두려워  
않았어 언제나 지성으로 일념  
지켜서 게 없는 세상 사람 모두 구하라  
(유호환·상동 351집)

발행처	인간개발연구소	발행인	김영환
편집장	김영환	편집위원	김영환
발행일	월요일	발행시간	오전 10시
발행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전화	100-715
발행처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67-8577)	팩스	(02)279-1270
발행처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	김영환

## 2학기 운영 계획을 듣는다 - ② 학생회

# 학원안정화 책동에 적극 대응

## 학생회체계 강화로 대중성 확보에 주력

### 단위학생회 의견 수렴에 미비점 많아

서울·경주 캠퍼스 양 총학생회는 상반기 총학생회를 바탕으로 학원안정화 2학기 사업의 근간으로 놓고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단위 학생회의 의사결정이 미약해 정확한 사업내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제2학기 학생회 중점사업으로는 학생회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상반기 5·6월투쟁 평가와 8·15법민족대회 평가작업에서 제기된 것으로 방향이라는 조직이완기를 거쳐 2학기 총학진군식, 추계 농활, 단대축전, 백상제전 등을 앞두고 학생회 조직 재검토 및 총학운영위원회, 각단대 집행부의 간부혁신과 아울러 과학성회의 사업을 토대로 한 대중사업추진을 총학의 2학기 사업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은 비핵축전 및 불가침선언 채택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학생운동 탄압분쇄, 학내 내 추후세력 결집등 2학기 정치투쟁을 조국통일투쟁에 두고 10월말에는 백상제전 중심

으로 학생회 강화사업을 계획 중이다.

중앙교과위는 학교측과 '학기중 신규교수 채용'을 구두합의에 따라 92년 1학기 채용학과 단위의 교과위 활성화, 강의평가제, 교양선택과목 개편등 학생 참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학자투위원회는 지난 6·3의 대대선 이후 '학원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학원안정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불대학생회에서 추진중인 '정상중진'운동과 관련된 동문·교수·불교도 연합등과의 연대사업을 하반기 학자투사업의 주요 골격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10월말부터 시작되는 단대선거 및 11월 제24대 총학선거전까지 이제껏 이원화된 학생회 체계를 얼마나 조직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즉 이미 시작된 고려대, 단국대, 숭실대 등 서울지역 몇몇 대학에서 가시화된 학칙개정 등 학원안정화 정책이 아직 본교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지 않았지만 92.3년 권력재편기를 앞둔 '조직정비'로써의 하반기 학생회 사업에 정세분석등의 정치논쟁이 학생회 사업의 장애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학생회의 2학기 사업일정 및 단대 학생회 사업이 조가 논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단위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학생회 간부의 혁신과 과단위의 자주적 사업에 기초한 이후 운영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회장=오규석, 한희2)를 비롯한 각 학생회·자치기구의 2학기 사업일정들이 지난2일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 2학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총학생회의 2학기 사업에서 먼저 동부의 연대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단혁신 문제는 피상적인 재단진입확보, 정관제정만을 내세워 재단 문제는 언급조차하지 못했다. 또 1학기 학교·학생 합의에

의한 교수영입이 문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일방적 채용에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적인 총학 2학기 사업을 살펴보면 △만해시비건립 △전학의 전차식제 △아외공영장 건립추진등 학교측과의 연대와 재단에서의 재원 지원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1학기 사업에서 제기됐던 교과위문제는 교과교위건설 및 강화로 중앙교과위의 활성화로 풀릴 계획이다.

이 밖에 2학기 및 장기적 전망에서의 사업추진부분에 △취업특강 활성화 △취업과 설치(내년) △수업신입생 유치 △환경미화추진위 구성 △서울·경주캠퍼스 차별성 철벽 △동국인 한마당 전지구상-교수직원·학생이 함께 참여 △선거문화 정착등을 제시했다.

(취재부)

## 농과대 고추 판매 오는 8일부터 해화관 앞서

### 농과대학생회(학생회장=류기우, 농학4)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농과대학과 농산물의 팔도전 유봉구조개선의 일환으로 '91농민사랑 농산물제철상기 고추판매'를 해화관 앞에서 실시한다.

농과대학생회(학생회장=류기우, 농학4)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농과대학과 농산물의 팔도전 유봉구조개선의 일환으로 '91농민사랑 농산물제철상기 고추판매'를 해화관 앞에서 실시한다.

총학생회전공 농민회와 본교농과대학생회 공동으로 10일간 학생, 교수, 식당일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고추판매행사는 농학이외의 농학연대사업의 기회로 마련됐으며, 현

정권의 농업해체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해 내고 중간도매상인의 폭리를 농민 스스로 막아 내자는 자주적결의를 담고 있다.

한편 올해로 3번째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농대 '고추판매추진위원회'(위원장=나영진, 농학3)는 농대 각 학과를 중심으로 고추판매의 원활한 운영을 담당할 판매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해물질 고발  
공과대 노안철 교수

공과대 노안철(식품공학)교수는 "검질을 벗긴 감자, 도라지, 마늘 등 현재 시판 중인 6개 제품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아황산염 표백제가 검출됐다"고 발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실험조사에서 노교수는 감자, 도라지, 마늘 등의 검질을 벗겼을때 효소가 공기중 산소와 결합해 색깔로 변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식품표백제 표백제를 다량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유해물질이 몸에 축적돼 식중독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백제의 사용이 범람하는 이유는 식품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소기업이 법규제 또한 미약한데 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진 양심 학생회관 수위실 유리창이 지난 29일 오후11시경 술에 취한 학생에 의해 파손돼 있다.

## 학대표회의 하반기 사업 결의

### 서총련 등반대회-총학진군식등 가져

성상중진, 복지매장건설, 학생회비 인상등을 안건으로한 2학기 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늘(4일) 오후시 학림관(소강당)에서 열린 학생회 2학기사업을 구체화 하게된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상반기사업총화, 모범단위 발굴과 시상, 성상중진추진위원회 구성, 학생회비 및 교지대인상, 하반기사업과 정세전망이 폭넓게 논의된다.

한편 총학운영위는 지난 31, 2일 연이어 회의를 갖고 성상중진추진에 법률고도와 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하반기 학자투사업의 중심에 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6·3의 대대선이후 학원에 가져오는

탄압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키로 결의했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서남총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속대에서, 8일에는 서총련 등반대회

가 도봉산에서 열릴 계획이다. 또 내일(5일) 개최예정인 2학기 총학생회 전군식은 구체적인 기획안 미비로 오는 12일로 미뤄져 열리게 된다.

## 社 告

### 제29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교 學術賞이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높은 참여로 동국의學術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 人文科學賞: 분상 및 가작(분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社會科學賞: 분상 및 가작(분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自然科學賞: 분상 및 가작(분상 25만원, 가작 20만원)
- ◇응모요령
  -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일상학과 함께 발표
  - 논문제출: 1991년 10월11일~15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 인상작품표: 1991년 10월 23일자 本紙 紙上

## 동대신문사

## 보수

맑고,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팔팔 내세우기 일수이다.

불교의 自覺利他的 앞의 法句經의 구절을 뒷받침 해

씩거리고 분주히 살다 가는 삶이 두터운 중심이 없거나 많은가. 남이 힘들어 소중히 이룩한 위업을 롤러볼 때 달걀 세우기식 발상을 서슴치 않는 사람도 허다하다.

여래가 증상에 대한 고려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남보다 자기문제에 합몰되어 야 한다고 본다. 남의 말을

가 뒤엎기 마련이고 서로의 우월성을 주의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은 披瀝不羈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삼일 전하로 끝난 소련 사태는 철옹성 같은 이념도 전설이 녹아 내리듯 무너져버린 것이다.

아마 간밤에 귀뚜라미가 준 예시는 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문제에 게으르지 말라는 절규가 아닐까. 그와 더불어 대학인은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책무인 학업에 충실하는 것만이 정확히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 시간을 자기정화에 정진하라.

崔玄覺

## 자기정화

주고 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현저히 대비되는 점은 뭐니뭐니 해도 自覺의 선언이라고 본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남의 문제만 풀

# 동대신문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성실한 일꾼을 뽑습니다.

일	월	수	목	금	토	일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의 빛을 찾아 헤메는 구도자라도 같은 '신문기자' 신문기자는 막대한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를 가진자라면 누구나 신문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사는 여러분에게 신문기자라는 명예와 함께 뛰는 만큼의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신문사는 바로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선택의 기쁨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자, 더이상 주저 말고 신문사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십시오.

- 동대신문은 꿈과 용기를 지닌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 무시험으로 사람 됨됨이를 보고 선발합니다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녀 재학생
- 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 킷, 사진
- 원서접수: 서울·경주 9월10일 오후6시까지
- 수습기자 지원자는 9월10일 오후6시까지 각각 서울·경주 신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설

혁신하는 학생회를 기대한다

2학기를 맞으며 자주적 학생회건설을 선포한 제23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더욱 혁신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2학기가 처음 열린 '법민족 대화와 방송사업보고' 집회는 1백여명의 조출한 인원과 지루한 집회내용으로 '저속적 행사'로밖에 비추지지 않았다. 또 이날 집회석상에 총학생회장이 운영위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불참한 운영위원을 일일히 기록하며 공개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맥빠진 자주적 학생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달여의 방학이라는 시업공백기가 가져온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총학생회 운영위 결의사항이 힘있게 과학생회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은 간부의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를 위해 간부특별교양학교를 구성하리라 하니 기대해 본다.

또한 학생회의 분화현상을 제한할 것이다. 매일 새로운 각도로 집행부조화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학우들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오늘은 2학기 학생회사업의 나침반이 될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린다. 하반기경세 전망과 공약이행, 학생운동단일분배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루워 학생대표자회의에 학

생들의 충의를 모으는데 대표자들은 뛰어 다니야 한다. 물론 이것의 전제로 학생대표자회의는 절대 사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체의 학생회에 활기를 넣는 것은 학생들의 믿음은 재차 밝혀준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총체적으로 모아내고 분인토의와 총회부정으로 집행시키는 자주적 학생회는 초기 불안정한 집행체계를 안정화시켜내고 과학생회까지 토대를 넓혀가는 진양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적 학생회 원년을 선포한 총학생회운영위와 집행부들이 좀더 자기혁신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92, 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2학기 개학과 함께 부자비한 학생운동단일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고려대, 숭실대등 15개 대학이 학교주요활동의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학교 우익화강도 예외의 선은 없었기이다.

내부적인 결속과 외부단입에 대한 대응책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이 때 결의에 차있고 단결적인 '자주' 승리의 한낱'총학생회'를 지켜보는 것이 학우들의 작은 바람일 것이다.

소련사태와 우리의 나아갈길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달만에 실패로 돌아간 소련에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서의 소련의 위치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소련인민의 문제이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어느 세력도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소련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세계 양대 체제의 축을 이루던 소련의 혼란 틈을 타서 패주의의 몰락,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논리로 미국 중심의 '신세계질서'를 구축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인민의 위대한 승리와 부흥기면에서도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직접적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인인이나 2류국가로 전락 시킬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인민의 여론흐름도 역시 목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서방자본주의의 4대통신사를 통한 것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소련의 정황들을 정치적으로 왜곡된 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매개로 계속 이어온 현정권이 소련사태에 대해 인민이 선택하고 얻어낸 민족적 승리를 극대화해 청산하는 것을 볼때 우리는 분노와 역성을 느낀다.

또한 소련문제에 사회전반을 들뜨게 해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제반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숨기는 미봉책으로 이용하며 한편으로는 마치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새로운 병진시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전역에 걸친 핵무기로 비핵 군축의 목소리가 높고자 하는 이때 오히려 그것을 빌미삼아 군사력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는 것이다.

소련의 문제는 그들 자국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련의 향방에 우리가 애틋해 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럴수도 없다.

간혹 '실각해가는 서민들의 경제불안, 더욱 광폭해지는 학생운동·노동운동 탄압, 소독본능의 구조적 개선, 조국통일등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야 할 우리 나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 실천하여 자주적으로 단결된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다.

일린클리

교양과목 증설-강의계획서 사전배도 필요

수강신청 이대로 좋은가

은 여러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남산을 오르내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92학년도 교과과정정립을 위해 학교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이번 2학기부터 이원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는다고 들었다.

이 협의과정에서 양주체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학사행정의 민주화와 과목배분과 배지이후 부족한 과목과목의 증설, 강의계획서 사전배도 학우들의 사전준비를 통한 학문탐구에 대한 열정의 진작이라는 사실이다.

김홍모 (문과대 철학과)

자치기구로서 제역할 아쉬워

여학생들 쉽게 참여하는 '총여'돼야

작년 11월에 투표를 했던 학우라면 '총여학생회 보궐선거' 대다수를 보고 의아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3월 총여후보 4명을 거둔다는 제7대 총여학생회는 먼저 총여학생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집행부의 직무대행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중앙기부서의 대외성상선과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인 각 단과의 여학생회의 부재(현재 야간강좌에만 존재), 그리고 여학생들의 정서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이 특검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재선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투표를 해보기 전에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궐선거 무산'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누구를 뽑는다는 단정보다는 우리의 대표를 왜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속에서 학우들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에 의의를 두는바, 보궐선거 자체는 무산되었어도 앞으로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중심으로 서야함에는 변함이 없다.

바로 이번 학생회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했을때, 총여학생회와 동학의 모든 학우들을 위한 자치기구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후 11월 선거에도 끊임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는 동학인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수연 (사범대 지교과)

도서관에 보다 많은 투자를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선수를 친 경우가 많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과제 도서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가서 자신이 필요한 책을 고르고 대출, 열람할 수 있는 과제도서관은 문학작품, 철학서, 각각 이문서들도 거의 구비되지 못해서 책을 찾으려고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기 일쑤다.

둘째, 책이 그나마 있는 것

도서관에 보다 많은 투자를

이러 해도 한편 내지 두권 밖에 없어서 다른 학우들이 먼저 빌려가면 대출기한 10일을 또 기다려야만 한다.

셋째, 교재로 쓰이는 책들중의 다수가 이미 재판날짜가 오래되어서 수업시간에 쓸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은 1만 학우와 모든 동학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도서관은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김수연 (사범대 지교과)

자판기 손실금 반환률 50%

휴게공간에서 쉽게 손질하는 곳에 각종 커피, 음료수, 휴지등의 자동판매기가 있다.

자판기판매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자판기의 손실금은 도서관 앞에서 반환하여 준다.

가끔씩 손실금 명부를 돌려보면 2~3인 단위로 3~4명씩 무더기로 기록돼 있다.

이런 기록된 손실금도 반환률은 50~70% 정도이며 그 액수는 10만원 정도다. 찾아가지 않은 손실금은 전액 학보에 게재에 사용된다고 한다. 정확히 기록되지 않고 지나치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도 반환방법과 손실금의 다나은 활용방법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백진현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통일선봉대 참가

◇광주편

과연 조국은 나의 어머니인가. 좀 거창해 보이는 의문을 안고 통일선봉대로 열흘간의 국토순례에 참여했다.

사실 이번 통일선봉대의 역할은 나의 감성적 수준 이상이였다.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만 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속에서 이제껏 하나로 생명을 부지하는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의 허구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기반적 통일장구 단결과 논리를 통일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진민족이 주인 주체로 나서서 통일논리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또 한반도에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의 위기속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고 지금 그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방법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과 국민을 같이 하는 것들이 91년 통일선봉대의 역할이었다.

본란에서는 '91법민족대회 통일선봉대로 참가했던 통선대원들의 투쟁담을 몇차례 걸쳐 실는다.

국토순례 둘째날이다. 전남대에서 숙식을 하고 아침일찍 두근거리는 제안으로 서충원만 망원봉 관망하기로 했다.

벗이여! 고이거소서. 그대 뒤를 따르라나...'

주검원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나의 나약함은 어떤가?

다정해 본다. 선배열사들의 죽음은 나의 역사의 뿌리라고 그 역사에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해 보자.

많은 생각을 하며 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대강이 오늘 아침, 잠실은 굵아 띠고 있다.

열사들 앞에서의 숭엄함보다는 배고픔의 통증이 비스라는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나란 인간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전남대에서 출정식을 하고 드디어(?) 시민들을 만나러 지리리 나갔다.

끝 우리의 힘은 시작되었

조진대의 밤은 화려했다.

통일선봉대원들이 노년경향을 띠는 젊은이들이나 시인들의 열기로 통일된 나라에 온 기분이다.

통일선봉대 환영식에서는 내가 이런 거창한 행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싶어 쑥스럽기까지 했다.

환영식이 끝나고 통선대는 밤먹으로 가는데 사외자가 귀한 손님이 왔다고 흥분하면서 누군가를 소개했다. 뭐가 술잔해 진장을 하는 순간 반대표가 조진대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통 노년경향은 무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무대앞으로 나오고 신을 벗고 모자도 벗어 하늘로 던지며 운동복이 떠나갈 듯 했다. 흥분은 총명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눈물이 난다. 막 눈물이 난다.

물론 해외대표를 북한대표로 소개했지만 막 눈물이 난다. 북한대표가 오지 못해 서로서로 눈물이 났고 이제 통일된 그날이 회담에 겨우 눈물이 났 흥분된 가슴으로 깊어가는 조진대의 밤을 맞으며 내일 이리에서의 투쟁을 다짐하며 잠에 든다.

박혁 (사회대 정치과)

통일은 혈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에서

런 것이었으리라!

한편, 중앙로에서 도청앞을 지나 조진대까지 거구를 온통 통일의 함성 반노태우의 구호로 물결쳤으며 청년학도의 생기발랄한 춤과 율동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고 전쟁은 자연스레 무정해제가 되어 버렸다.

사람사는 세상 같았다. 눈물과 설움, 분단조국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피눈물나는 몸짓이었다. 엄청나게 긴가리를 걸어서 조진대에 입성했다. 목이 배어서 구호 외치는 건 포기해 버렸지만 지켜올리는 팔뚝은 하늘이라도 저를 못 했다.



**온 방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한삼자락 휘날릴 수 있는 목소리 크게 울리며 진정 우리의 참모습을 가꿀수 있는 91학번을 고전극원 구회 '탈배'에서 9월14일까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탈배회장 드림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집이 있는 우리주위의 많은 학우들이 작게는 가구및집, 크게는 집이나 농작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모두 주위의 친구·동료·선배의 손을 잡고 돌리 보고, 함께 합시다.

—꽃다지회원 일동 드림

■가족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에서 바쁜소리·참글을 배포하고 항상 노력한 '한계제신문'경주지역에서 함께 일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화연락 (0561)41-0777

—출로 외로운 자국장드림

■암살이 뭘지  
영상에서 가장 큰 행사(?)인 암살입방식이 오는 6일 오후5시 동아리방에서 열립니다. 해당회원은 암살직업에 관한 리포트와 방화과제물을 들고 모임시요.

—암살장이

■가을입니다.  
무덤고 옆에 사람만 있어도 지치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하늘 높은 가을입니다. 나 자신보다 주위를 둘러보며 늘 친구와 후배와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하며 그간 회포도 풀어봅시다.

—89의 지존 유석이가

동학! 광장

■지금부터 동문회를 시작합니다.  
·(부산)영도여고 -오는9일 오후5시30분, 도서관휴게실에서 회비는 5천원.  
·거제항우회-오는5일 오후5시, 원효관(A)302에서 회비는 5천원과 차한잔.  
·서울고-오는(4일) 오후5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신규회장단 이·취임식을 인건으로, 회비는 일만원(찬가?)  
·진주남·여고-오는5일 오후7시 원동식당에서 회비 1만원(고기떡이 중).  
·아화항우회-오는 6일 오후 5시, 도시관 휴게실에서, 안나오면 책임 못짐(회비는 자유?)  
·구미 남·여고-오는 5일 오후5시, 원효관(A)401에서 회비 만원(고기떡이 중).  
·경주 문화고-오는5일 오후5시 원효관(A)208에서 회비는 8천원임.  
·천원항우회-오는6시 오후5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이 가을·겨울 따뜻하게 보낼 공리라고 합니다.  
·청주-오는 5일 오후5시30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이미 우리는 하나, 도서관휴게실에서.

■9월생 선랑에게  
전원서 / 9월6일, 24번째 맞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젊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잘 살아 볼까요? 사랑해요.

—국어교육과 철없는 당신의 아내로부터

■산대진단체  
개강을 축하합니다. 보다 알찬 2학기를 보내십시오. 학기형, 2학기복합 환영합니다. 이희정, 우리 동문회 하자구, 그리고 별태, 내 남은 어디 갔소

—엘친

■이름모를 81학년 선배님 도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충동하신 뜻에 따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후배사랑회 일동 드림

■사람의 수화국식 기초반 3기개강 일시:9.2~11.21(3개월간)  
매주 월·목·P.M 5:30~7:00  
장소:공대E605  
수강료:10,000원(교재비포함)  
접수:공대E8 손짓사랑회 사랑방 또는 기초반 강의실(단, 9월12일까지)  
대상:전·동국인이면 누구나

—동국대 손짓사랑회

■회비를 납부합니다.  
동국대학 중급집 '강서'를 보면서 무한한 애교심을 느끼는 강서 동문 여러분/플래카드, 매자보, 졸업생생활회 준비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조흥은행 313-04-257299 김기정 입금에 3,000원(9월 10일까지 한달분)

—강서동문회(회장 정연태) 올림

■식품공학과  
개설 30주년 체육대회  
'식공과의 나이를 아십니까?'  
3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시:1991. 9.14(토) AM 10:00  
장소:대 운동장(만해광장)

—식공공학과 학생회

■카메라를 찾습니다.  
지난2일 아침7시30분쯤 지하철 동대입구에서 해호문까지 미청소운동을 벌이던 정충동·매마·윤동현·최희정·자민봉·사태원의 카메라(개는:자동)가 정소도중 분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분은 동대신문사(구내전화2194)로 연락바랍니다.

■나의 스무해 생일을 축하한다.  
나의 마지막 생일축하가 되었구나. 짧은 시간동안 많이 변했을 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수로

■귀하의 모든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성공적인 공연 축하한다. 노력을 많이했고 알찬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힘내라! 특히 윤현, 선희, 은주야

—귀회를 사랑하는 아이

■군대간다면서 술값만 빼고 오라말  
내민 권준이영 / 글래디스의 광란속에서도 곳곳이 살았던 '꽃무기'처럼 앞으로 모진 동맹속에서도 꽃꽃이 사시길 비디라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버님이 생일선물로 랜던출어났으니 빨리 집에 오시랍니다.

—후배기자 일동

■가을을 기다리는 사회과학대 여러분  
깨 드리는 가을은 꽃으로부터 편지.  
뜨거웠던 그 여름날이 이제 허름이 높아지는 시간으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아쉬움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일이 무척 많이 놓여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한결을 한결같이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군선관림 힘찬전진!

—노들해방의 철의 기지

**목역골**

■카메라를 찾습니다.  
지난2일 아침7시30분쯤 지하철 동대입구에서 해호문까지 미청소운동을 벌이던 정충동·매마·윤동현·최희정·자민봉·사태원의 카메라(개는:자동)가 정소도중 분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분은 동대신문사(구내전화2194)로 연락바랍니다.

■나의 스무해 생일을 축하한다.  
나의 마지막 생일축하가 되었구나. 짧은 시간동안 많이 변했을 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수로

■귀하의 모든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성공적인 공연 축하한다. 노력을 많이했고 알찬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힘내라! 특히 윤현, 선희, 은주야

—귀회를 사랑하는 아이

■군대간다면서 술값만 빼고 오라말  
내민 권준이영 / 글래디스의 광란속에서도 곳곳이 살았던 '꽃무기'처럼 앞으로 모진 동맹속에서도 꽃꽃이 사시길 비디라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버님이 생일선물로 랜던출어났으니 빨리 집에 오시랍니다.

—후배기자 일동

■가을을 기다리는 사회과학대 여러분  
깨 드리는 가을은 꽃으로부터 편지.  
뜨거웠던 그 여름날이 이제 허름이 높아지는 시간으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아쉬움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일이 무척 많이 놓여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한결을 한결같이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군선관림 힘찬전진!

—노들해방의 철의 기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한삼자락 휘날릴 수 있는 목소리 크게 울리며 진정 우리의 참모습을 가꿀수 있는 91학번을 고전극원 구회 '탈배'에서 9월14일까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탈배회장 드림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집이 있는 우리주위의 많은 학우들이 작게는 가구및집, 크게는 집이나 농작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모두 주위의 친구·동료·선배의 손을 잡고 돌리 보고, 함께 합시다.

—꽃다지회원 일동 드림

■가족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에서 바쁜소리·참글을 배포하고 항상 노력한 '한계제신문'경주지역에서 함께 일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화연락 (0561)41-0777

—출로 외로운 자국장드림

■암살이 뭘지  
영상에서 가장 큰 행사(?)인 암살입방식이 오는 6일 오후5시 동아리방에서 열립니다. 해당회원은 암살직업에 관한 리포트와 방화과제물을 들고 모임시요.

—암살장이

■가을입니다.  
무덤고 옆에 사람만 있어도 지치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하늘 높은 가을입니다. 나 자신보다 주위를 둘러보며 늘 친구와 후배와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하며 그간 회포도 풀어봅시다.

—89의 지존 유석이가

# 신라인의 자취어린 벽화등 곳곳에



## 불교 문화 학술 조사단

문명대(단장·불교 미술사) 교수  
홍영백(서양과 소련문화 관계사) 교수  
권기중(중국불교사) 교수  
정병조(인도 불교사) 교수  
박도화(벽화) 연구원  
임영애(서역 미술사) 연구원  
김철중(출판 자료수집) 연구원

지난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동국대학교 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조사단(佛敎文化遺蹟學術調査團)은 중국과 소련의 실크로드상에 있는 불교문화유적을 조사하였다. 실크로드문화교류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중요유적과 실크로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역남로, 그리고 소련의 초원의 길 등 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역남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코스를 조사한 것이며, 더구나 학술조사로서는 현대에 들어온 후 몇몇개는 세계적인 탐사의 하나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각 연구조사자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란의 불적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

### 1. 역사적 배경

이느 북정민족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지리적 영향을 떠나서 논의할 수 없다. 이른바 문화·종교·철학 등은 지리적 자연에 대한 '도전'의 응답이라는 토인비의 지적은 정당하다. 서양과 동양을 잇는 실크로드는 교통로 '실크로드'는 험준한 산맥과 사막이 가로막혀 있는 불모의 대지이다. 한두사이에 문화가 이르는 실크로드의 연변은 특히 거칠고 사

막잡은 바로 그 호법의 상징일 수 있었다. 실제로 문명문자 가운데 서역문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呪術의 符號를 강조한 밀교경전이다. 또 佛畫·佛像 등도 밀교적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符號는 아마 민간인들에게 부적과 같은 성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듯하다.

서역불교는 조악한 자연환경속의 여러국가들에게 선진문화를 향한 중요한 高橋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

### 2. 중국의 불교문화유적

6월9일부터 북경의 광제사들을 조사한후 산서성 태원(太原)의 천룡산석굴(天龍山石窟)·경주의 공현석굴·낙양의 용문석굴(龍門石窟) 등 실크로드 문화교류상 가장 중요한 유적들을 조사했다.

#### 1) 천룡산석굴

12일에 조사한 천룡산석굴은 태원에서 17km밖에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하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이 석굴은 우리 선인들인 백제말때의 명장 이었던 흑지상지(黑齒常之)의 딸 흑지씨와 고구려의 유장(柳)로 생각되는 순(旬)장군부부가 북제(560년경) 때 조성되었다가 수나라에 황폐된 천룡산석굴을 707년에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이후 중국불교문화의 꽃으로 각광받았던 불적이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곳이다. 특히 당나라때의 아름답고 세련된 사실주의 조각의 극치가 있고 이것은 인도교과와 통일신라조각과 직접적으로 교류관계를 갖고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

#### 2) 공현석굴

낙양의 동쪽 황하와 그 지류인 이하(伊洛河)가 마주치는 삼각지역에 위치하여 옛부터 백제와 신라 등과 관련이 깊었던 불적이다. 그래서 백제불상 가령 예사문화교류 등라고도 유사하여 서로의 친연성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 3) 낙양의 용문석굴

6월 14일 낙양의 용문석굴을 조사했는데 이 석굴은 운강석굴, 둔황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석굴로 유명하며, 북위와 당나라의 수많은 불상들은 당대 최고의 절작품들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新羅石像"이라는 수행석굴이 있어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신라사람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수도에 전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서역남로

둔황석굴조사후 벤차 2대에 분승하여 서역남로의 험로를 따라 많은 유적을 조사했는데 서역남로는 가장 중요한 실크로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우리의 혜초(慧超) 스님과 중국의 현강·법현등 많은

순례승들이 이 길을 산맥의 북쪽에 걸쳐 오아시스를 점점이 잇는 교통로이다.

#### 1) 미란(米蘭)의 불적

둔황에서 청해성의 청장고원의 험로를 넘어 미란불적을 조사한 때 22일, 광활한 사막 한 가운데 도성과 불교사원의 유적이 페르르 뒤편에 남아 있는 서역의 유수한 유적이다. 탐과 사원지에서 많은 벽화와 불상들이 출토되었는데 날개달린 천사상과 예수상같은 석가상 등 헬레니즘문화의 영향이 농후한 작품들이 많아서 동서문화교류의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 2) 호탄(和田)의 유적

호탄은 서역남로의 가장 중요한 고대도시였는데 이 지역에는 옛 도성과 불적자들이 사막 여기저기에 무수히 산재해 있다. 특히 라와르사지·단단외력사지등은 동서문화교류상 가장 주목되는 곳이며 서역의 중심지였다고 있다. 이곳 불상은 간다라불상(타실라 내지 스트라불상)들과 깊은 친연성을 갖고 있기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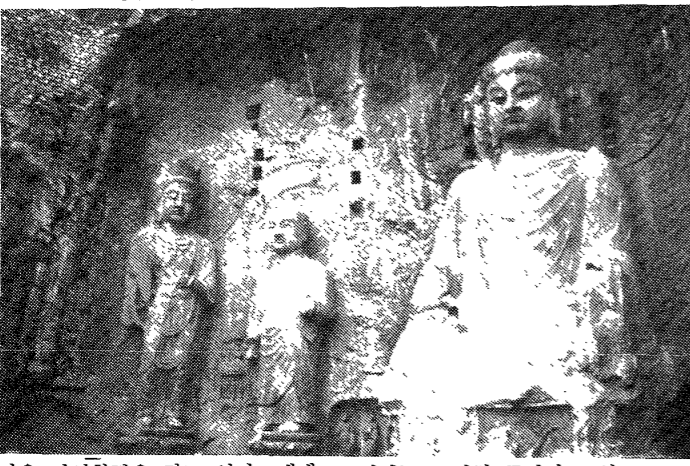
#### 3) 카시카르유적

중국쪽 서역의 끝 도시인 카시카르는 실크로드의 교통요지여서 이곳은 옛부터 중요시된 곳이다. 옛 도시는 사막속에 묻혀 있지만 현재도 고성과 사지·석굴등이 남아 있어서 옛 영광을 되살릴 수 있다.

#### 3. 소련 실크로드의 유적

6월28일 우무루치를 출발 만년 설이 덮인 용강천 천산(天山)을 넘어 알마타에 도착. 알마타·타시켄트·사마르칸트등지의 유적을 탐사했다. 이 가운데 페르가나와 불교사원지의 사마르칸트의 궁전벽화와 신라시절도 가장 흥미거리이다. 특히 신라시절도는 머나먼 신라의 국력과 문화교류에 대한 강연한 열의를 해초등 많은 신라승려들을 순례길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고, 찬란한 신라의 불교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우게 한 핵(核)이 되었을 것이다.

문명대(미술학과 교수)



◁인도의 불교는 무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졌다. 중국에 전해지는 대대석굴은 정교하며 웅장하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다. 사진은 용문석굴의 대불.

나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세계의 지평 히말라야와 천산산맥의 위용은 하늘을 찌른다. 그 서남방에는 티베트와 인도. 끈돌산맥을 넘어 동남편으로는 타라라마산 사막과 고비사막이 길게 누워 있다. '生者不遷' 실사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몇몇 부족국가들이 명멸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에게는 '역사'가 없다. 노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천산남로의 실크로드 연변에는 카쉬카르(疏勒), 호탄(于阗), 누린(樓蘭) 등 불교국가들이 있었다. 한편 천산북로의 불교국가들도 우차(龜茲), 부르칸(北嚮), 베제크르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강성한 세력을 지녔지만 중국이나 인도등에 큰 위협을 주기도 못했다. 4세기경 인도의 중국부를 석권한 훈족(嚮)이나 중국을 위협한 대월씨족들이 그 단면적 실례이다. 중국의 後漢 말년부터는 서역승려들의 중국 입국이 현저하게 늘어난다. 당시 중국에서는 漢譯經전의 보급이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들의 東漸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정나라 때 이 어이까지 이 입국자는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다. 安世高·支謙·鳩摩羅氏·曇摩流支 등은 모두 이름을 드날린 譯經僧들이었다. 신라의 고승 慧慈·惠業·

나라는 금격이 몰락하고 실크로드 연변의 여러나라들이 또 다시 두각을 나타낸다. 그 당시에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서역민족으로서는 키타이(契丹)·탕구트(Tangut), 투르크(Turk) 등이 있다. 키타이, 탕구트 등은 각기 遼西夏라는 국호로 중국을 위협하였다.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이 일대를 석권한다. 그의 사후, 둘째 아들 자가타이가 이 일대를 통치한다.

### 2. 밀교적 전통

실크로드의 불교는 시대와 부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밀교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개탈음의 신비적 체험을 具象化한 만달라(Mandala)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 부족의 초기 불교수용에는 部派佛敎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부터는 사서화 大乘佛敎의 전통을 수용한다. 특히 인도의 정치적 혼란이 있게 되면 예외없이 西域으로의 망명이 이루어진다. 이들 인도승려들에 의하여 도입된 불교는 점차 이 지역의 풍토에 맞게 수용전개되는 것이다. 인도불교가 다분히 幻想의 분위기를 갖고 있음과 비교해 불해, 서역불교는 보다 呪術의이다. 그들에게는 거친 자연을 外護하는 구체적 '힘'이 필요하였고 부처님의

다. 서역의 나라들은 유목생활에 익숙하다. 그러나 방랑자의 정언에 문화나 철학은 없다. 다만 삶의 의욕을 현란하는 질서 서역민족이 있을 따름이다. 불교를 통해 그들은 개생을 응시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통해 정신적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불교가 지시하는 삶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문자를 갖게 되었고, 조각 등 테크닉을 배움으로써 예술생활이 가능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실크로드의 불교는 거의가 라마(Lama)적 전통을 갖는다. 다분히 권위주의적이며, 부처님 절대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보살정신의 함양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전통의 특수, 아이덴티티의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더구나 중국 불교의 토대를 이룩한 교학적 연구에 이들 譯經僧들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실크로드의 불교는 불교문화의 변방성으로서가 아니라, 고유한 전통문화로서 새롭게 인식, 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불교문화와의 관련을 찾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병조(국민윤리학과 교수)

## 연변 조선학 국제학술포럼을 다녀와서 항일무장 투쟁해석에 이견 여전

남북 분단이후 남북한의 한국학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학 각 분야에 걸친 진지한 연구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회를 벌인 것은 작년 오사카(大阪) 조선학국제학술포럼 이후 두번째의 만남이었다. 이번 연변대학 학술포럼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참가자들로 놓고 볼때 오사카 학술포럼에 버금가는 대외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회의의 진행내용으로 볼때는 전시성교과를 노린 회의의 성격이 짙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필자가 참가한 민족독립운동사분야에서 유독 북한학자 3명이 참가하였고 회의에 대한 분위기가 열띤 학문적 토론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에서 열린 한국학(조선학) 학술포럼에는 남북한 학자를 비롯하여 중국(연변) 일본 미국 소련 캐나다등의 학자 및 동포학자 300여명이 모여 역사, 철학,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등 6개분야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고 활기찬 토론을 벌

였다. 이번 학술포럼은 기대되었던 학문적성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자원의 남북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통일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다 더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번 학술포럼에 필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에서 역사분야의 민족해방투쟁사(한국민족독립운동사) 소조(분과)에 참가하여 한국 7명, 북한 3명, 중국(연변) 8명, 일본 1명 등 총 19명의 학자가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이번 학술포럼의 5개분과 가운데 오직 한국독립운동사분야에만 북한학자 3명이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학문분야중 이 분야에만 북한학자의 관심이 보다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측에서는 필자를 비롯하여 박성(연변), 국사편찬위원장, 윤병석(인하대), 신용희(서울대), 이원희(성신여대), 조항태(숙명여대), 유순(충신대) 교수등 이 분야의 중진학자들이 참가하여 1920

년대와 1930년대의 항일투쟁투쟁, 열부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투쟁문제를 새로이 조명했으며, 북한측에서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최진혁교수가 1930년대 항일투쟁투쟁이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연변대학)측에서는 박창욱교수가 경신년(1920) 반토벌전투의 동부전선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고, 김중화교수등 학자들이 조선의 열당, 흥반도의 항일투쟁투쟁, 서인의 항일투쟁 등 다양한 항일투쟁투쟁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와다하루키(和田春樹)등경대 교수가 항일연군 제1로군의 고난의 시기에 대한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

위의 연구발표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남북학자간의 항일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제였으나 우리측 학자들의 발표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어느정도 평가해 주려는 경향을 보여 이는 민족주의 진영의 항일투쟁에 대한 북한 학계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점에서 이번 학술포럼의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1940년의 위중진(魏重鎭) 임혁이 서거(書簡)의 분석을 통해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동향을 검토한 와다교수의 연구는 또한 주목

되는 연구의 하나였다. 그는 1940년 9-10월 일본관동군의 토벌에 의하여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이 괴멸되는 과정을 김일성유격부대의 탈출 입소의 연립이 정칙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때까지의 북한측에서의 주장과는 상반과정에서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북한측이 반론을 펴지 못한 것은 역시 학문의 그 자체로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인 왜곡은 그 생성력이 없다는 것을 실증시켜 준 것이었다. 이 발표의 사회를 많은 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 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끝으로 이번의 학술포럼이 끝난 뒤 남북한 학자들의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식상과 또한 개개인의 학문적 위헌장 그리고 북한의 최진혁 교수에게 배려된 연설에서 우리는 한결 같이 이러한 학술포럼을 앞으로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하고, 민족독립운동사분야에만 한정된 일한 학술포럼이 되도록 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은 이번 학술포럼의에서의 매우 큰 성과의 하나였다.

김창수(역사교육과 교수)

# 동국의 상징 성상(聖像) 중건에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읍시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 않고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 줍니다. 민족과 동국통락을 해온 불교속에서 부처님의 범람어래 자비, 평등, 정토구현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선각자들은 목덕의 이룩한 자리에 동국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발원이었습니다. 동국이 수차례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야 할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 평등, 정토구현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실현화시키고 미래로 나아갈 좌표로서 1964년 모든 동국인과 모든 불교도가 한뜻으로 동국의 상징인 불상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성상건립은 민족종교 불교가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 해왔던 것처럼 건립당시에도 조국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님의 자비평등과 지혜에 힘입어 민족과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역군을 배출하고 동국의 자긍심을 북돋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국의 상징이자 1만학우의 얼굴이며, 한국불교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성상이 지금에 이르러 마지 수년간의 구겨진 민족과 동양의 역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온몸에 고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불교도와 모든 동국인이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각자들과 선배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그러한 텐데 오늘에 이르러 학우들의 성상에 대한 자애와 학교당국의 관리소홀은 학교당국과 학우들이 동국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며 모교에 가 상심되어 간다는 뜻이며 다름아닌 것입니다. 사상의 혼재와 어려움 역사적 조건속에서 동국의 1만 학우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국인은 다시한번 성기일진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성상중건은 의미가 자못크다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바로 이곳 동국의 곳곳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동국인 한사람 한사람의 뜻과 마음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민족과 역사발전을 위해 성상을 건립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성상을 중건함은 단순한 부처님상을 깨끗하게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동국인이 건학이념을 온몸에 체화하고 이러한 건학이념 아래 자신을 변혁하고 민족과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불교가 민족과 함께 살아온 바 모든 불교도는 중생구제와 인간해방의 발원지인 동국의 성상중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건립은 어느 때, 어느곳에서나 살아 숨쉬듯이 불타는 사상은 동국인과 불교도가 있는 어느곳에서나 영원히 살아 숨 쉰 것입니다.

동국을 사랑하는 동국인이여!  
민족을 가슴에 담은 불제자들이여!  
이제 목욕제하는 마음으로 성상중건에 동참하고 동국사랑, 민족사랑의 길로 공행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건학이념인 자비, 평등, 정토구현의 정맥은 오늘 것이며 미지않아 인간해방, 인간평등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나무를 나무법 나무승

불기 2535년 8월

## 동국대학교 성상중건추진위원회



총 예산: 6천만원  
중건발주: 9월말 중건완공: 10월말

### 불상중건모습

- 불상 본체: 부처님상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부처님 격과 보 존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금한다.
- 기둥: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깨어진 부분은 보수 하고 화강석을 붙이며 시철량상은 부처님 철계 부분을 교체한다.
- 기둥 뒷 부: 뒷 부분은 채색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형식으로 막는다.
- 바닥: 기존의 것은 파손이 쉬우므로 화강석으로 바꾼다.
- 불상 주위: 기둥받침대 높이를 형태로 주위를 두르며 군복을 심어 조경을 아름답게 가꾼다.
- 불상 앞밭: 아의 불단 형식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불단을 만든다.
- 게시판: 부처님의 말씀을 학우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세운다.
- 경도: 기존의 경도를 약간 변경하고 이곳에 의자를 놓아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 성금 단 위: 학생 5천원 이상, 일반 1만원 이상
- 접수 기간: 1차 - 1991년 9월 20일까지, 2차 - 1991년 10월 10일까지
- 온라인구좌: 조흥은행: 313-01-122038 불교학과, 국민은행: 068-01-0349-544 불교학과, 한일은행: 170-050851-01-001 불교학과, 우체국: 012328-0063852 불교학과
- 연락처: 동국대학교 불교도 연합, ☎267-8131(교)3513 불교대 학생회

\*기타 성상중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여학생회 해체를 통해본 여학생회 전망

“필요성 인식할때 제대로 설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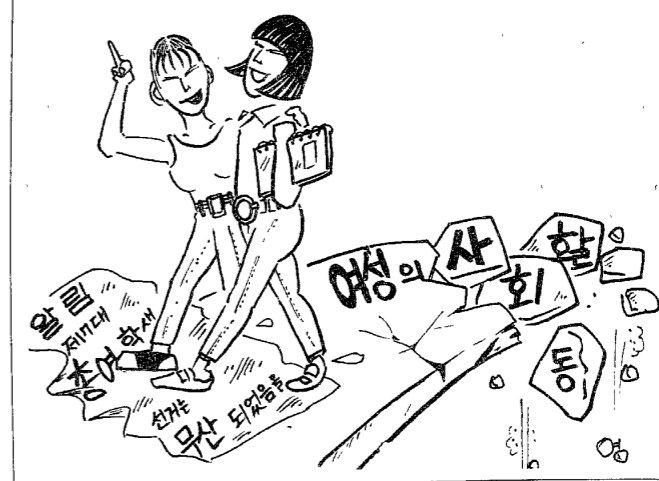
- ... 서울캠퍼스 4백여학우들의 직결선거를 통해 당선된 ○... 제7대 총여학생회가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해체되고 보 ○... 렬 선거까지 무산되었다. ○... 이에 여학생회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보다 올바른 방 ○... 향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실는다. (편집자) ○...

개강이 며칠 지나지 않아 학내에는 대안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름아닌 제7대 김윤희 총여학생회장의 결핵에 따른 보결선거를 알리는 대자보였다. 이 대자보를 본 많은 학생들은 방학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이번 보결선거를 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던 1학기의 1/4분기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4월17일 있었던 감사결과 여총은 야간강좌를 제외한 각 단대의 하부토대의 부채, 또한 하부조직건설 노력부족, 인권사업에만 머물러 다른 여타의 사업부진, 전문적·독자적영역의 부채, 출범당시공약이행 미진등의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6월26일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그때까지도 지적사항의 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장은 건강상이유로 부채, 기획부장인 손주연양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감사가 있던 6월26일부터 총여학생회장의 결핵을 인정하고 회칙에 따라 임기 전 조기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7월3일 선관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7대 총여학생회의

는 성과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운동, 그중에서도 여성운동에 북부함으로써 원사 회원실속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불평등을 해결하고 여성들의 진정한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는 조직이라면 그에따르는 실천활동이 뒤따라야 할 자명한 이치이다. 이부분에 대해 4월부터 여총회장의 업무대행을 맡은 기획부장 손주연양은 “사실 사업부재라는 측면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가시적인 사업을 활발히 하지는 못했으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정치투

대에 있었던 조직도 해체는 야대 한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것은 서울 뿐 아닌 경주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경주 또한 7대가 될때까지 과·단대의 여학생회가 조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연구모임으로 돌아선 ‘꽃다지’가 있을 뿐 과 여학생회도 철학과 한 곳뿐이다. 경주 여학생회 활동을 보면 학생회관 3층 여학생회실에서 열리는 주일행사(목요 영화감상, 화요특강-꽃다지, 공예, 목요특강-아동교육, 탁아문제)를 진행하거나 정치

화, 그리고 여대생 취업을 위한 특강, 자로집발간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2학기 사업기조를 밝혔다. 이렇듯 서울·경주캠퍼스에서 모두 지적되고 있었던 현재 여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부토대의 부채로 인한 실질적 사업의 부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직건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회조직이 안되는 것, 있던 조직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은 바로 여학생들 개개인의 의식부족에서 오



승없이 하곤 한다. 바로 이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에 여학생들이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취업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과대나 공대의 경우는 그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지 못했기에 대한 비판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학생회가 건설될때에는 그만큼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에서 출발할 것이다. 동약의 2천4백 여학생들 중에는 남학생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느끼는 불이익이나 불평등은 느끼지 못하며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여학생들은 ‘여자’라는 특수하거나 특별남에서가 아니라 사회현실조건상 당하는 불평등속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과·단대 여학생회 건설로 사업기반 마련해야 학외에 산재한 여성차별에 대한 고민 요구돼

쟁이나 혹은 인권사업등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 그렇지만 하부토대가 없는 현실속에서의 사업이란 공중에 뜬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학기 사업부재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현 동약의 여학생회의 열악한 수준을 지적했다. 또한 학내의 문제점이라면 손주연양의 말처럼 현재 동약내에는 각 단대의 하부조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야간강좌에만이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을뿐이다. 89년에 불교대, 문과대, 사범대, 농과대, 이과대, 예체대, 야간강좌의 총7개 단과

사인과 학내 제반문제에 대해 1주2~3회씩 대자보 작업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여학생회시설 보수공사와 화장실에 휴지지판기설치등 복지사업도 일정정도 진행했으나 근본적으로 학내 여학생운동이나 여학생회조직(과 단과대)이 활발하지 못해 간헐적 행사에 치중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경주캠퍼스 여학생회장 박정희(국사 4) 양은 “1학기 사업부진을 단기 위해서 2학기에는 과 여성문제 연구모임과 여학생회조직건설을 위해 운영위 강

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간강좌 총여학생회장 김혜경(산공3) 양은 “여학생들 자신조차 여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여학생회가 조직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여총같은 지도부에서 각 단과의 조직건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현재 동약의 여학생회의 조직화에는 바로 동약의 여학생들의 인식수준과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여학생들의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7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허부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뒤만이 좀더 나은 여학생회의 건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7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허부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뒤만이 좀더 나은 여학생회의 건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내 전공학회를 찾아 국교과 학술부 산하 '우리말 연구회'

북한 말과글 연구 준비중 방언답사 통해 회원들 더욱 '단결'

◇방언답사를 간 회원들이 강원도 수감리 주민들과 저녁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나마 보존된 우리말도 해방후 말어락한 언어·영어등의 레퍼토리에 오염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그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 본래의 순수우리말을 보존하려는 뜻있는 학술투입이 있다. 올해 3월에 3학년 4명, 1학년 5명으로 시작한 국어교육학과 학생회 학술부 산하 '우리말연구회'는 신설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오후6시, 토요일 오전10시 모두 두차례, 꾸준한 모임을 지속함으로써 전 공학회로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학회라면 학생회 발전에 어느정도

과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현재는 각 회원들간의 학습의욕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조직활성화를 위한 의욕만 앞서고 그에 맞는 운영방법의 부재 등 전체회원간의 의견수렴이 안돼, 현재의 회원중 많은 인원이 탈퇴하기도 했었다. 이런 우리말연구회가 다시 화합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학술부설 회원간의 중등차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던 방언중 답사였다. 강원도 정성군 수감리로 지난 8월2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동안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언(어휘, 문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알게되었고 회원들간 단결과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회원들간에는 진정한 우리말에대한 애착을 가져 2학기 교육 및 연구과정으로 '북한의 말과글'을 선택했다는 '우리말연구회'는 일반학생들이 보통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 북한언어이지만 더 잘 보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민족의 동질성회복이라는 의의를 들 수있어, 북한의 말과글에 대한 연구를 한창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동약에는 많은 학술소모임들이 꾸려져 있다. 대학이 학문연구의 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연구회'와 같은 자발적인 학문연구의 모임과 열의들로 부터 시작할 것이다. (송태영 기자)

동약로

지난30일 오후1시 학생회관 앞. 많은학생들이 점심을 먹기위해 한창 동약로를 오르내리네.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는 '공교-제7대총여학생회장 보결선거 무산'이라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서로 즐거운 얘기를 하기에 너무나 바빠졌다. "네 어제 삼프로 봤어?" "응? 응. 굉장히 재미있더라" "피?" "그거 있잖아?" 이때 총여학생회장 보결선거 날짜를 물어보면 아는 학생은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총여학생회가 어떠한 기구였나를 명확히 알려주

우리들의 것

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제7대 총여학생회는 기부장적,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치며 출발했다. 그러나 4개월후에는 총여학생회 최윤희(인철4)양의 진강산 문제로 기획부장 손주연(교육 3)양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동약의 여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봉건적 억압의 밑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여성문제를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학생들과의 허물없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 여성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애, 어서 어머!" "아주 좋는데, 옷에 그려진건 뭐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장산곶매야" 생활속에서... (이경애 기자)

September 1991 9. 9월의 문화달력. A calendar for September 1991 with a grid of dates and events. Includes a section for '부지런한 9월은 하루가 짧습니다.' (Diligent September is short) and a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How to use the cultural calendar) section.

◇환경오염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전망을 알아 본다.

# 공해반대 주민운동 '지역이기주의'로 매도

올 4월 전국을 식수공포로 몰아넣은 페놀배출법률유사안이 발생 한지 채 몇달도 지나지 않은 요즘, 환경문제에서 국민 모두가 그 피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논리를 기지에 깔고 앞다투어 보도하던 제도인권이 실제 환경오염피해 국민의 환경운동유익을 해독보도하는 물론 심지어는 대규모 오염반대주민운동의 동향마저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치하려는 유해환경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적 입장을 '지역이기주의'라는 신무기를 들고 폐쇄된 삶에 대한 정당할 요구를 난도질하고 있다. 나라전체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물임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고 공해가 복합적이며 국가전력에 의해 노골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월 500만원의 폐수정화비용을 줄이려고 1천4백만 명 남민 주민의 상수원에 페놀을 방류했던 두산전자의 '페놀사건'을 비롯하여, 세계1위인 가 3위인가 논란이 되는 대기오염, 3급수조차 고갈된 위험에 처해있는 극심한 수질오염, 맹독성 농약의 과다사용과 개발사업으로 병들어 가는 국토환경, 유독성폐수, 간헐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해양생태계, 일회용품의 과다사용과 단순매립에 의존하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쓰레가 더미화되어 가는 생활환경 등 공해와 오염의 국제바람권을 연상하게 한다. 식탁에 오르는 생선한토막, 야채류, 불한모듬을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한국민중의

인간을 자연적 체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변형능력도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법칙은 잉여가치법칙이다. 모든 생산은 사회적 유용성보다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전유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논리하에서 진행된다. 그 결과 자연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폐기물이 적체되고 곳곳에서 생태계의 사슬이 끊어졌다. 자연의 자정능력은 약화되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다만 자연을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방향으로 생산력이 발전해 갈 뿐이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거쳐 자유경쟁자본주의는 독점자본

과 국가권력의 경제에 대한 개입강화로 해결하면서 공해문제는 선진 자본주의국에선 전국적으로, 체계 발전에선 보편화되어 전 세계적 규모에서 환경위기는 심화되어 갔다. 그 내용은 첫째 소비심리와 허영심을 자극하는 신상품의 개발을 통한 자연의 남용과 남비, 둘째 권력과 유착된 독점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개발, 셋째 자본수출과 그를 통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제국주의의 후진국속국으로의 공해수출 등이다. 결국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탄생한 자본주의는 자연력과 자연자원의 이용을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에 종속시켰으며 자연에 대한 무제한의 약탈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특정한 영역에서는 자연자원이 황

# 민중 생존권보다 자본가이익 보호가 우선 선진자본주의의 후진·종속국 공해수출 막아야

하는 것이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각종 공해유발장치의 건설, 일반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신규 건설,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등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적 입장이 모두 '지역이기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의 한면을 환경문제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제도인권이 그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유 공권력이 문제해결의 끝마무리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사회문제 '처리'의 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에서는 환경문제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환경문제의 합목적 성격과 특색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지구적 차원과 한국에서의 오염실태를 간략히 알아보자.

자본주의사회의 이전에는 환경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간혹 삼림의 약탈적 벌목이나 평산의 남굴 등을 통해 자연환경이 현저히 파괴되고 그에 따라 특정인간집단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쟁이나 홍수, 대지진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속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

주의 단계로 전화해간다. 독점단계는 공해문제를 공업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시키는 시기이다. 공장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공업도시에 더욱 몰리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급증된 양의 오염물질이 상호 복합작용을 일으켜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공단의 물은 오수로 변해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고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런데 자본은 공해문제해

폐되어있고 인류의 자연적 존재 기초는 파괴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대전역의 대립이 발생시킨 핵무기 개발경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전기가 발생시킨 자연남용과 환경오염의 보편성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도 어렵게 관찰되어왔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걸어왔던 종속적 발전의 성격으로 인해 한층 증폭되었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국



◇정부의 대기질 보호 환경정책에 의해 폐수로 뒤덮여 있는 한강 하류의 모습.

다. 그러나 발전사회의 태내에서 단순협업, 매뉴팩처 등을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온 생산력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자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즉 구태의 무지몽매한 자연적 속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인간이 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자연적 체 조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인간은 기계의 사용에 의해 보다 많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롭게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결과를 비유가 많이드는 공해방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농촌으로부터 찾는다. 그결과 도시는 주변의 농촌을 흡수하며 더욱 거대화되고 공해문제는 주변농촌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 시기엔 산업의 중심이 공업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되면서 환경은 더욱 악화된다. 당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자본의 논리에 맞선만큼 성장한 상태에 아니어서 이윤추구를 위한 환경파괴는 더욱 심화된다. 독점자본이 재생산위기를 후진종속국에 대한 자본주의적 초과입을 수탈

가권력의 주도하에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독점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이 강화되어 온 과정이며 한편으론 자본, 기술 시장, 원료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종속적 위치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깊숙히 편입하는 과정이었다. 광공업위주의 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되면서, 공해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후 사양산업화된 공해다발산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은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는 한국에서 중화학공업시대를 개막하고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환경오염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민운동을 발생시켰고 생활의 질이 악화됨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이 항상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페놀배출사건을 포함한 3차례에 걸친 수돗물파동은 환경문제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크게 고조시켜 올해 공중위생이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물가문제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가 이쯤에 이르자 자본축적의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고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민중의 민주적, 생존권적 권리투쟁으로부터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권력도 체제수호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하는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희석화하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페놀사건이후

### ◇부당해임된 동국학원 산하 흥제중 구 현 교사를 만나

의견수렴을 통한 비민주적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며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

이번 구교사의 해임조치는 사학법에 의한 교원신분 파면이 아닌 나 학교당국에 의해 얼마든지 해임·확대해설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난 7월20일 박동민교장이 요구

# 재단, 교육민주화에 역행

## 교육환경 개선하려다 '문제교사' 몰려

하는 교사들이 '의식화 교사' 혹은 '맹방이 교사'로 매도돼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파면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학법이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원을 극도로 불안하게 함으로써 '재단순종형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부의 교육지침도 거부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달 14일 교원단체위원회(위원장=김갑수이사·변호사)는 동국학원 산하 경남 밀양 흥제중 구현(33·국어)교사를 해임조치했다.

사학법 제88조 1항 4호(면직사유-정치운동, 노동운동을 하거나...)에 의거한 전교조가입이 그 유일한 이유로, 이는 '전교조 활동중'이라는 명백한 근거자료없이 박동민교장의 모략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난 89년 3월에 부임한 구교사는 교육부의 교육지침이기도 한 △속성회계예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담임배정 등의 학내민주화를 요구해 일찍부터 학교당국과 제단으로부터 '소란스러움' 교사로 지목됐다.

이에 구교사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무조건 순응하는 식의 권위보다는 교사들의

한 교원단체요구서의 교장의견에 대해 구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한 중2 국어교과서의 '조리있게 말하기'부분에서 학생들 스스로 작성한 '우리학교 학생의 통일에 대한 견해' 설문조항을 의식화 교육이라 매도하고 있으며, 도서관 관리학생들에게 선물한 전교조 문화부 노래테이프가 전교조활동 근거자료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며 재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설문사항에 대해 "국어교육 과정의 하나인 것도 하느냐 교장에게 받은 사항 아니냐"며 반박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법 77조(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에 근거한 권위주의적 교육방범"이라고 비판했다.

동국학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두차례 흥제중학교에 내려가 학생·학부모 등을 만났으나 구교사 해임을 주도한 유성희교장, 교장 해임의 의견만 들고 구교사 자신의 사건경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동국학원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지켜줬다'는 주장에 맞서 구교사는 "유성희교장등 일부 학부모의

이 지나쳤다"는 여론이 형성돼 사학법에 의한 모종의 '가위질'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가 비록 불법단체이지만 표방하는 내용은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길"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소신을 밝힌 구교사는 "사학법에 의하면 교원단체위원회는 2차까지 열어야 하나, 1차 회의후 해임을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에 재심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부당징계에 불복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최고 전보로 처리되나, 사립학교는 교육법을 무시한 해임까지 조치할 수 있다"며 구교사는 초헌법적 하위법인 사학법의 폐단을 지적한다.

이번 구교사 해임조치와 계속되는 사립학교 교원 파면조치는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안정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학법개정 취지를 역행하는 것으로 이후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 합법화 투쟁과 사학법 개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병민 기자)

## SAM YANG GROUP

# 제2회 대학생 논문현상공모

### 여기 빛을 비추십시오!

상업의 學窓에 비치는 진리의 등불!  
대학생 여러분이 지고 기꺼운 학문의 빛을 여기 삼양사에 비추십시오.

올해로 2회째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하는 삼양사는 여러분의 절친타마를 곁에서 지켜보며 곱고서 드높은 산업현장과 상업이 만나는 생생한 산학협동의 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안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의 패기와 이상을 삼양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논제(아래 논제중 택일)

- 유통산업개발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대응방안 (식품업체 중심)
- 고임금시대의 기업의 대응방안
- 소비자 Needs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기업의 정년퇴직자 활용방안
-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 2. 상 금

- 최우수작 1편 : 200만원과 상패 ●가작 5편 : 각 50만원과 상패
- 우수작 2편 : 각 80만원과 상패 ※ 공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3. 응모자격

-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4. 응모기간

- 1991년 10월 31일 (목)

#### 5. 당선자 발표

- 1991년 11월 29일 (금), 당선자 개별통지 및 월간리크르트, 월간캠퍼스저널, 대학신문에 공고

####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8매 내외의 요약본 첨부 요망)
- 1인당 응모편수 및 2인 이상 공동제출 제한 없음
- 제출처 : 당사 총무부 인사과
- ※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번호 110-725, 주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263번지 (주)삼양사 총무부 인사과 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 7.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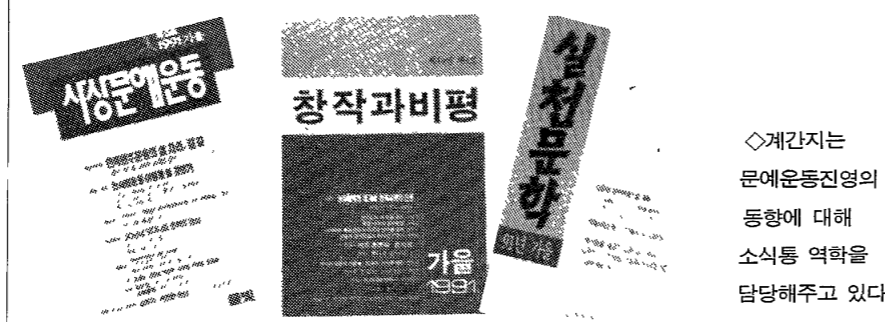
-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고제출시 재학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성명·전화번호 명기 요망
- 타기관에 제출한 유사 논문은 심사서에서 제외됨
- 가능한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하여 제출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총무부 인사과로 전화문의 요망 (TEL. 740-7155~7)

1991년 9월

## 삼양사

# 허무적 역사주의 근간의 자유주의 문학 대두

### 계간지를 통해 본 문예운동의 흐름



#### 1. 각 계간지에서의 주요 쟁점

계간지는 문예운동전역의 동향을 잘 보여주는 언론이다. 그만큼 대중적 문예잡지로서 자기위상을 갖고 있는 계간지의 움직임은 문예운동의 최근 소식과 역할을 담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문학사를 보더라도 잡지가 끼친 영향력은 적지않았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식민시대 우리문학의 흐름이나 해방이후 잡지를 통한 문학논쟁의 전개는 곧바로 우리문학사를 살펴주게 한 좋은 계기였던 것이다. 특히 문단의 두가지 목소리를 70년대에 '문학'과 '지성'과 '창작과 비평'을 주축으로 전개한 잡지의 성격과 그 근저에 놓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 격렬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문학론의 뿌리는 김현과 '문학'과 '지성' 등의 움직임에 있다고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적 변혁의 전망'을 부정(否定)한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하정일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의 견해엔 자유주의문학론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정일이 평가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두가지의 기준, 즉 '민중적 전망/소시민적 전망'과 '리얼리즘/반리얼리즘'의 대립구도를 갖고 평가하는 관점은 몇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고리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인하여, 진지함이 주는 감동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 해방의 길을 이제는 걸어두고 '거품같은 길'을 지나 결국 '절로(절)이'라는 길을 택한다. (시집에 실린 '길', '집'을 보라.) 유하역시 '하나'라는 관념속의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꿈의 상실을 그 속에서만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계해방의 문제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신적 해방을 꾀하는 방식, 즉 소수적 '해탈(解脫)'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

어는 소시민계급의 그것에 있다는 점은 부정하긴 힘들것 같다. 주된 미학적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탈 혹은 풍자와 야유또한 그것들이 사회본질적 관계를 보여주는 데 일조하기보다는 이미 진보성을 잃어버린 무의미성을 절제 풍기고 있다. 우리는 18세기 J.스위프트와 C.디킨즈의 영소설에서 보여준 풍자와 해탈이 어떻게 현실의 모순관계를 드러내 주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적 제약에서 야기되는 한계를 따고 있지만, 그들의 소설은 그당시 자본주의적 질서가 점차 사회

기율여야 할 것이다. 이념내용의 구체화와 풍부화, 이것은 우리변혁운동 진영의 갈길일 뿐만 아니라 문예운동의 핵심적 고리라고 생각한다.

핵심적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것의 실현을 향해서 문예운동전역은 자신의 노동장태를 해아하며, 제반사업의 측면에서 구체적 일상생활까지 '상승'해 들어가지 않는 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에서는 과거의 한계와 오류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보다 치열한 작가를식을 토대로 현실의 길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노동소설에서는 현재 하나의 경향을 다룬다고 있는 사랑문제의 형상화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 즉 대부분 사랑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소재 혹은 제재의 확대로 밖에는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작가의 현실을 보는 안목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시대 참다운 사랑의 내용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것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자유주의의 운동에도 그 맥없는 민족문학의 움직임은 바로 여기에 서 출발의 첫걸음을 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영직 <노년문학예술 연구소 문학분과>

## 국내·외적 상황에 편승한 '사상적 혼란'의 일면

### 해탈 - 풍자 - 야유... 본래역할 떠나 진보성 잃어

생각한다. 세계관, 창작방법의 문제 모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지점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전망'과 당파적 현실주의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미적으로 음미로 전유하기 위한 가장 변혁적 관점은 서있을 때에야 가능하며, 자유주의문학론의 기준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유주의문학론은 문단의 한 기류를 구축, 이제 민족문학계에 도전하고 있다. 이 같은 자유주의문학론의 뿌리는 우리사회의 변혁적 전망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에 자리한 '허무적 역사주의'와 자기분열된 세계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을 것이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근 찾아져나오고 있는 시집을 보면 우리의 이같은 판단이 성급한 예단(豫斷)만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 해준다. 가령, 젊은 시인 유하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나 황지우의 '개눈 속의 연꽃'같은 경우, 상상력이 자유분방한 좋은 점을 갖고 있지만 시집에서 전담하고 하는 매세지가 다분히 모든 이방과 현실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표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황지우는 과거 그가 꾸준히 창작해온 민중의 삶과 현실을 이념의 시집에서는 알레

주의 문학론은 자신의 개량적 목소리를 또다른 의미를 빌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든 아니든 다른 것이든 우리주변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운동론 뿐만 아니라 전체변혁운동전역은 극심한 '사상적 혼란'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적, 국내적 상황에 편승한 자유주의 문학론의 이같은 준동은 우리는 그 해결의 전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문문학운동전역은 그 해결의 전망을 '민주주의 전선의 확대와 예술창작 및 대중문예사업에서의 대중성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의 경로가 현실적인 타당성을 띠게 제시되어야 할것 같다. 필자로서도 최근의 자유주의문학론의 대두에 맞선 문예운동이 어떠한 길로 꾸준히 발전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현제로서는 정당한 판단이 서진 않지 않지, 대중을 장악하고 대중의 올바른 지향점을 창작과 대중사업 가운데서 제시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현재로서는 자유주의문학론이 어떠한 계급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창작에서의 성격과 이념적 지향으로 보건대 60년대 김승옥, 이청준 이래 명맥을 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집에서 많은 진보적 요소를 담고있는 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자유주의 문학론은 세계관, 창작방법, 미학적접근방식 등 모든 요소에서 일관적 민주주의의 요소조차 상실한 양상이 아닌가싶다. 선명, 일관적 요소를 이념적 지향과 작품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현실에서 잃어버린 '안락운동'을 해나갈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인공인상을 위한 정당한 요구투쟁에 공헌력을 투입하는 우리현실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점진적 개량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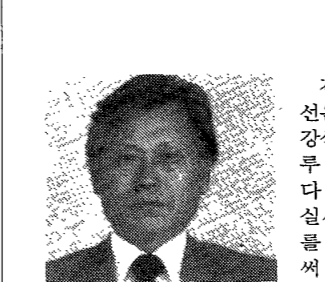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처럼, 최근의 이러한 흐름에 대한 극복을 자기의 핵심적 문제로 위치짓기 위해선 문예운동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개념적이고 공문구같은 말을 공허하게 내뱉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실천문학'가을호에 실린 유중하의 견해 또한 합리적인 핵심은 여기에 놓여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대중성확대의 문제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노동해방이념을 현실속에서 풍부하게끔하는 노력을

### 우리말을 찾아 ①

잘못 쓰일 수 있는 말

**경신(更新)/갱신**  
경신과 갱신은 음(音)은 다르지만 한자로 같은 글자여서 혼동하기 쉬우나 각각 뜻이 다른 표준어이다.  
우선 한자 更의 뜻을 보면 '경'으로는 '고치다, 대신하다, 지나다'의 뜻이 있어 경계(更改) 경시(更始) 경정(更正) 등에 쓰이고 '갱'의 뜻은 '다시, 또다시'로 갱년기(更年期) 갱문(更問) 갱생(更生) 갱진(更進) 등에 쓰이고 있다.  
이같이 更의 뜻이 쓰임에 따라 목음과 뜻이 달라 경으로 읽을때 更新의 뜻은 옛것을 고쳐 새것을 함의 뜻으로, 스즈오런 선수는 자기 기록을 7일인 갱신했다. 스즈오런을 다수확으로 갱신했다는 수확을 올리고 있다. 와 같이 쓰이고, 갱신으로 읽을때는 ①다시

### 탈해와 천정에



결계 정선은 우리 장산을 두루 누비고 다니면서 실사(實事)를 함으로써 자기것으로 만들어 조선포에서 현대에 오는 한국화를 보여주었다. 일종의 방랑벽이라 할까. 김삿갓은 그나름대로의 생활을 즐긴 것이라 할까?  
그 옛날은 팔도강산이 넓고 멀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온세상 지구의 주변을 광대하나 원근에 대한 생각이 각자 나뉘는데로 현실을 위하여 다닌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인생의 가치를 보람있게 하려고 목적지로 향하여 유주를 남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약20여년전 미술인이란 누구냐 한번은 가보고 싶어하던 로마,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기타 주요문화가 번영한 도시와 시골을 두루다니다 우리의 것과 비교하며 연구하고 싶었던 곳을 다녔던 일이 있었다.  
그 시절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그들의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뚜렷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규모가 크고 작고, 역사가 짧고 길다는 것과, 그 국민들이 그 문화를 얼마나 자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또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차이인 것이다. 따라서 그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얼마나 예술문화에 대한 정취를 실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 보였다.  
우리도 분명히 선인들의 훌륭한 업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5천년문화역사에서 새로운 창조의 창작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그간 엄청난 차이가 생겨 왔다고 본다.  
20여년전 여행길에서 동족을 만나면 너무 반가와 부모형제를 만났던 것 같다. 또

### 방랑과 깨달음

전영희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이국의 문화에서 배울것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구에 관한 여러자료, 도구, 서적등으로 귀국때는 그 짐의 크기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지난 봄철에 소련에서의 전시회관개로 귀국길에, 유럽에 들렀다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출국때보다 휴대품이 반쯤은 줄어들었고 귀국때는 어디 이따미에 들렀다. 장사 다녀온 느낌이었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2주간의 뉴욕에서의 초대개인전에서는 작품전시후 특히 유럽 미술에 호감들의 덕분에 귀국때는 훌훌하게 간단한 손가방하나로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뉴욕의 권태에 빠진 평론가들에게 활력을 주지만 드문 일일 습니다'라는 서투로 내에게는 큰희망과 조언까지 받을 수 있었다.  
세상 20년전의 생각이 난다. 서구의 박물관, 미술관 그밖에 거대한 예술공간에서 있을때 나 자신이 그 작품속 한기류에 빨려들어가게 된 것 같았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나도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을 하기도 하고 그후에도 여러번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며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자아도취도 하고 역시 제작생활에 기(氣)를 모으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다. 전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인생 가치관을 논하다보면 역시 또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내나이 63세라고 하나 오늘도 역시 나의 걸음을 찾아 듣고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또 자신을 찾아다니 인생의 한해는 서산에 기울고 하루의 오후를 느끼게 한다.  
이제와서 세상 생각하니 할일은 많으나 불쌍히 볼 수 없다. 다만 나의 기(氣)를 더욱더 살려서 혼자 고독한 즐거움속에 힘찬 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 “대학생 등록금 준비 끝”

# 조흥은행 학부모통장



**최고 300만원의 교육비를 대출해 드리는 학부모통장.**

알찬 지식과 높은 이상을 갖고 꿈을 대학생활, 조흥은행이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함께합니다. 조흥은행은 최고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학부모통장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학부모통장, 이렇게 편리합니다.**

-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교육비를 자동대출해 드립니다.
- 최소 1개월 정원에 5배이상
- 출금 수수료 면제하여 드립니다.
- \*유리한 출금수수료, 계좌유지비용 등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 \*실제 유학생의 사례에 따라 유학생에게 1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자녀용으로 서류등의 긴급대출요청이 있을 경우(당첨 FAX 활용) 무료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각종 공과금, 정기예금이자, 적금원리금, 대출이자 등을 자동 납부하여 드립니다.
- 통장하나로 저축예금(저축예금이 있으면은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가계유대정기적금포함)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 등록금 생활비 → 대학생

조흥은행

밝은 내일 위한 성장

## 조흥은행

☎ 본점 : (02) 733-2000  
 ● 동로지점 : 278-4011 ~ 20 ● 동국대출점소 : 265-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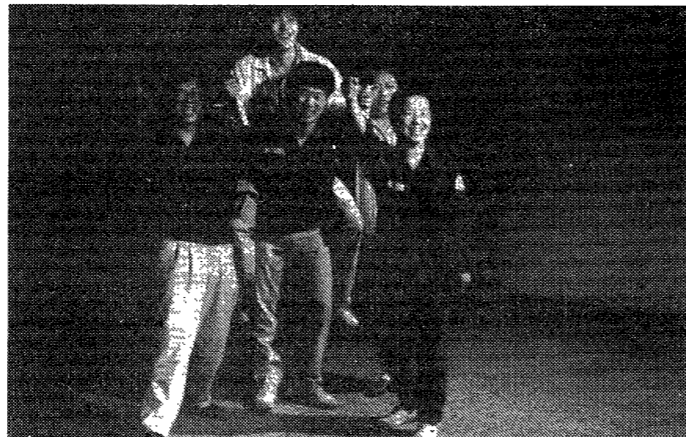


연극소개

극단 '함께 사는 세상' '노동자, 내친춘아!'

삶의 현장에서 엮은 노동자들의 '청춘'

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극단의 좋은 작품을 서울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적하여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교류 및 문화예술의 전국적 균등화



◇이 연극은 노동자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 문화교류에 한걸음 다가서 입장권에 '박인배대표 석방' 요구안 실어 홍보활동

이러한 허구성을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위한 한 방면이다. 극단 '현장'의 박인배대표가 실형2년형을 받은 것은 유반악법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이처럼 음반, 영화, 연극, 출판 등 문예운동 탄압이 날고 심해지고 있다. 민중의 산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이에 맞서 민중가요가 실린 불발(?)테이프 판매와 영화 제작-상영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으며 연극 포스터나 각종 전단, 후원 광고를 통해 '박인배 대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 정서에 근거한 이런 문화들은 입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직접 대담하게 대담하게 마련이다. 민중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노래, 그림, 영화, 연극, 출판 등 문예 활동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활성화 되는 날을 그려본다. (이경애 기자)

"농산물 제값받아 농촌을 살리시다"

본교 농과대내 고추판매를 앞두고



◇본교 농과대는 제천농민회와 3년째 고추직거래사업을 하고 있다.

제천에서 온 농민의 편지글

또 힘들어 심고 가꾼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 왔다. 농민들은 이때를 기다리며 뜨거운 여름날의 구슬땀도 잊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농민들은 이 가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저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다. 올해는 고추값이 얼마나 갈까? 쌀값이 얼마나 갈까?가 최대 관심사이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빛줄을 갖고 가슴펴고 살 수 있기를 고집한다.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민족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전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한가마에 백만이라도 하는 수입을 버릴 것인가? 우리농업이 파괴되면 언제까지나 수입 농산물의 값 싸지는 않을 것인가 때문이다.

싸고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고추직거래사업은 농민, 학생, 도시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현재 제천농민회에서 고추직거래

고추직거래로 농학연대 '튼튼' 일상적인 사업 진행돼야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첫째, 어려운 농민회와 재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셋째, 농민회가 농민간의 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을 위한 농민 스스로의 노력이다. 올해도 제천농민회는 9월9일부터 18일까지 동국대와 교육대에서 고추직거래를 한다. 학생들은 농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추직거래사업에 임했으면 한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에게도 꼭 농업문제를 알려내자. 그래서 고추직거래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도시민의 생존이 걸린 농업을 살리는 계기가 되도록하자.

심명숙 (제천농민회 회원)



영문과 영어연극반 'Every Man' 공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본교 영문과 연극소모임인 '영어연극반'에서는 '제12회 영어연극반 연극공연'으로 'Every Man'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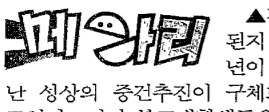
한다. 일시: 9월 5일~7일 오후 4시, 7시 장소: 연극영화학과 소극장

'돈' 주양 oder 기하학에 대한 사랑

동덕여자대학교 독문과 연극부 'UTOPIST'에서는 제1회 가을 정기공연으로 막스 프리쉬의 '돈' 주양

oder 기하학에 대한 사랑을 번역한 번역극을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주인공 돈 주양이 여자보다 기하학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자를 곁을 떠나지만 결국 한여자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내용이다.

일시: 9월 17일~19일 오후 6시~7시 30분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예술관 중강당



페이퍼

▲건립된 지 27년이 지난 성상의 중추추진에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불교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기금마련과 홍보작업이 진행중이며 매일 아침 성상추진을 비는 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분교로 어수선한 불교계 집인과 민주분교회를 비롯한 선배, 불자까지 동참을 시킨다하니 오랫동안 불교계 결속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누워서 감동받지 못하는 바깥편 중추추진에 불교계 대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 있다. ▲불교사를 보면 내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절을 짓는다는 것, 불상을 건립한다는 것, 불사(佛事)를 통해 부처의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고자하는 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중 불상은 1세기말 갈라라, 머투라등지에서 출현하는데

속인도 여려가 될 수 있다는 보살도수행이 중시되면서 많이 생겨난다. 우리학교 성상도 64년에 7척5촌크기로 석가여래정동상으로 세워진것은 보살도수행의 한 실천이었을 것이다. ▲성상추진 추진이 겨우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유감스럽게도 학교당국과

11월 이사장선거와 7인 이상의 임기만료라는 객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물론 학교당국의 요청부동의 자체가 급변화한것에 오히려 자제가 있었지만 이번 성상추진에 불응국인과 전불교도 차원의 결속에는 변함이 없는듯하다. ▲수행을 통해 속인도 여려가 될 수 있다는 보살도수행의 의미하는것은 돈뎌폰으로 해결되는 불상중추진이나 불상성상에서 구도(求道)와 동학사상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성상추진을 둘러싸고 순수한 취미들이 더덜해지는 행위들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범불교도와 연대속에서 64년 선배들의 금과옥조같은 한문두품으로 모아진 성상을 전동국인의 보살도수행으로 삼는데 이번 성상추진의 큰 뜻이 있음을 잊지말아야겠다.

명분싸움

학생회간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시작됐다. 중추추진에 놓고 대립하는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 학교당국은 단독추진을 주장하며 학생들은 빠지라는식의 명분을 내세우고있다고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태도를 보여준 학교당국인정(90년 학생회공약등 계속 불상추진을 건의했으나 거절)이 급진화한 것은

동학의 티

이름 못지 않는 의의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지난 학기부터 '동학의 티'란 이름으로 우리들의 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 있었다.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 자제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동학의 이름을 찾아주는 역할까지는 했다고 보여진다. 가끔씩 경주에 있는 캠퍼스의 터나 시비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보려는 어떤 연대감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이름찾기 못지 않게 터

“아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중요”

가꾸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동학의 동산들 대부분은 이름만 그럴싸할뿐 잔디가 승당승당 벗겨져나가고 마차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정도로 지저분하다. 또한 사비들은 낙서장이 되어 끔찍하고 부스러졌다. 이런현상으로 우리의 터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이제 가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동학도 함께 재건비하고 살찌어야 하지 않을까.

정소영 (사법대 지리교육과)

새로나온 책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공지영 지음 펴자 공은 지영은 1988년 '창작비평'에 '동트는 새벽'으로 등단했으며 그의 도시적 감수성은 보다 명징한 이미지를 띠며 그 주인공들은 매우 당당할 정도로 자주적이고 자기 의식적이다. 이 책은 1980년대 초 대학시절의 어려웠던 시절을 뜻깊이 헤쳐나갔던 내 선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힘들고 외로웠던 싸움의 기록들이 지금 의로운 우리 후배들의 가슴에 작으나마 희망의 씨를 뿌려줄 수 있게 하기위해 썼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동녘: 3천8백원)

감색운동화 한켠에 임우홍 지음 이 책은 노동자 계급의 문화이 80년대 후반 이래의 숙성과정을 거쳐 내용은 팔복상대의 목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반과 예심의 사람은, 조선조의 노동자투쟁을 위엄있게 젊은 노동자의 진출한 사랑과 투쟁을 생생한 눈으로 추적하여 개성적인 화풍으로 전달하고 있다. 필자 임우홍은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고려대 동양어 학부에서 한해동안 공부했으며, 1988년 서울대 독문과로 적을 옮긴 이래 차츰 소설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실천문학사: 4천원)

나마스테 지음 이 책은 전방 송파사에서 승려가 되고 LA고려사에서 교포를 한 바 있는 지음소설의 인도성지순례기이다. 1년동안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곳의 주민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손으로 음식을 마구 집어먹는것에도 익숙해진 과정들과 순례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해가고 있다. 되도록 침묵이 없이는 원만한 충실하여 성지순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시대의 한 나그네가 다녀온 부처성지순례 모습을 사실대로 말하고자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지식산업사: 4천5백원)

한운운 시의 비평적 연구 윤석성 지음 한운운은 知, 佛, 意, 眞, 善, 美, 聖의 추구를 문학적 사명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문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필자는 가치지향의 감정인 情이라고 보고, 그의 대표시집인 '님의 침묵'의 '나의 경조를 유령으로 고찰하고 그 특성을 알아본 후 詩史의 의의를 논하고 있다. 필자는 본교 국문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주요논문으로 '信念의 詩化', '윤동주 시의 懷疑와 克服' 시집으로 '寒露'가 있다. (열린문고: 7천원)

기철학을 넘어서 박상영 지음 전 고려대 교수였던 김용옥 씨에 대한 철학적 비판으로서, 이제까지 김교수가 많은 양의 글들을 통해 전달하거나 시도한 기철학의 구조를 중국철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기철학의 전제부분, 중국철학에 드러내진 유비(類比)적 사고, 중국철학의 흐름과 그 본질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즉, 김교수가 주장하는 기철학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배태된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라브리콜: 4천5백원)

이별을 지음 본교 농업경제학과 이병준교수의 저서로서 필자가 시민대학에서의 시민 윤리 강의를 무소모임에서의 가장 윤리 특강,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권이 들려준 교양강의 그리고 교직원 30년에서 얻은 지식과 생각을 모은 글이다. 아들딸을 착하게 기르는 지혜, 동지를 밝게 만들자면, 바르게 살아가자면, 처세철학의 참모습,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란 내용이 가치가 높고 있다. (형설출판사: 3천5백원)

불꽃처럼 살다간 예술가들의 초상 최수호 엮음 창조적인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으려고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 이들의 삶과 예술은 자유로운 사상, 기형적으로 조명한 이해의 내용은 진솔하면서도 무척 흥미롭다. 김현, 채광석, 이강희, 오윤, 추송용, 김현식 등 15인의 이기기를 평소 이들이 가까이에서 지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친화기: 4천원)

그후의 세월 아나톨리 리바코프 지음 이 책은 리바코프의 '아르바이트' 이어져 제2부로서 주제가 스물 세 살의 개인운명의 문제에서 '아르바이트' 아이들'보다 한층 근원적인 문제인 철학적, 사회적, 인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주인공 사사의 개인적 운명이 혼자 힘으로는 헤쳐 나눌 수 없는 모든 소련인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책들: 5천원)

돌연변이 하얀 제비죽 장용득 지음 이 책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부작정 상경, 현대대 한무도회 영등포 지회 회원으로 사회출을 가르치고 있는 장용득씨의 저서이다. 제1부 돌연변이 편에서 제비죽의 사랑, 댄스와 제비죽, 뜻이론 사랑이 예뻐하고 등 생활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2부 개달육의 세계에 선 나에 대하여, 문학의 길에서,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가 등 삶속에서 느낀바를 서술하고 있다. (정도출판사: 4천5백원)

진짜로 강한 사람은 이병돌 지음 본교 농업경제학과 이병준교수의 저서로서 필자가 시민대학에서의 시민 윤리 강의를 무소모임에서의 가장 윤리 특강, 그리고 학생들에게 특권이 들려준 교양강의 그리고 교직원 30년에서 얻은 지식과 생각을 모은 글이다. 아들딸을 착하게 기르는 지혜, 동지를 밝게 만들자면, 바르게 살아가자면, 처세철학의 참모습,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란 내용이 가치가 높고 있다. (형설출판사: 3천5백원)

너를 만나는 파도가 되어 김용철 지음 1977년 '현대문학'에 소설 '열녀' '희상'으로 데뷔한 이래 소설만을 써오던 필자가 20대부터 서운 1백여편의 시를 쏟아내며 다듬은 60여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첫시집으로써 제1부 겨울바다에서 제2부 불면증으로 찢어져 있으며 필자는 본교 국문과 출신으로 작품집에 '겨울편지' '다시, 기다리는 연습' '누나의 시' 등이 있다. (미래문화사: 2천8백원)